

정훈 목사 “예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예배가 많다”

2월 27일(금)-3월 1일(주일)까지 개최된 나성영락교회 창립 53주년 봄 말씀집회에서 정훈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는 ‘사랑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인도했다.

3월 1일 단상에 오른 정훈牧사는 한국 교회의 위기를 진단했다.

“우리 교단(예장통합)은 한때 성도 수가 4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250만 명으로 줄었다. 150만 명이 감소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예배가 많다.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니다. 사랑이 없는 성도는 예수 제자가 아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율법이 앞서고 바리새인들이 앞서고 있다.”

정 목사는 한국 교회가 그동안 ‘덕(德)’의 차원에서 금기시해온 술·담배 문제보다 더 본질적이고 무서운 죄는 ‘미움’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교회 안의 목사들과 장로들 간의 분



창립 53주년을 맞은 나성영락교회 봄 말씀집회 정훈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나성영락교회

쟁과 미움에 대해 언급하며, “그런 장로가 기도하고, 그런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책망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무서운 죄가 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라고 하셨다. 서로 미워하면서 예배 드리러 와서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

으신다.” 그는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규율을 지켰음에도 예수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라 책망받았던 이유 역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신약에서 심계명은 ‘이웃 사랑’ 한 계명으로 압축되었으며, 이웃 사랑이 없으면 모든 계명을 어긴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정 목사는 이번 예장(통합) 총회의 표어인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를 소개하며 용서는 상대의 회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서는 일방적인 것

“용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다.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 앞에 주님께서는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다. 490번을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라면 깨달음이 없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용서해 줘야 한다고 하신다.”

그는 죄에 대한 뉘우침, 즉 회개가 용서의 선행조건이 아니라고 말했다.

“당자를 용서하며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대신에, 너, 그 돈 어떻게 썼나?’ 이럴 만한데 안 물어본다. ‘아들아, 내가 너 용서해 줄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해라.’ 이럴 만한테 아무런 조건도 없다.”

“용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유일하게 열 번을 용서해도 억울하지 않고 백 번을 참아도 억울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 자식이다.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데도, 그래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께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 지라도 흰눈처럼 용서해 주신다.”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간 갈등과 재판으로 어려움을 겪은 나성영락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다.

그는 “나성영락교회는 해의 한인 교회의 상징적인 교회로서 평안하고 부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믿음이 더 좋은 분들이 먼저 용서하고 안아주어, 오늘을 기점으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축복하며 설교를 마무리했다.

주디 한 기자

“이란 기독교인들, 희망 가득... 정권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사”

이란 얼라이브 미니스트리 창립자, 현재 분위기 전해

이란 복음주의자들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사망 이후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란 기독교인들을 위한 미디어 사역을 운영하는 호르모즈 샤리아트(Hormoz Shariat) 목사는 “모두가 처음에는 기쁨과 희망에 차 있었지만, 여전히 ‘다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전했다.

테헤란 출신으로 현재 텍사스에 기반을 둔 그는 이란 얼라이브 미니스트리(Iran Alive Ministries)



이란 얼라이브 미니스트리 창립자 호르모즈 샤리아트 목사. ©iranalive.org

를 창립해 24시간 스트리밍되는 온라인 사역을 운영하며 페르시아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이란 안팎의 기독교 지도자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다. 샤리아트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이란 기독교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탄압으로 흩어져 있으며, 오랫동안 이란 당국의 체포 대상이 돼 왔다. 또한 서방 열강의 도구로 자주 비난받아 왔다.

그는 3월 1일 릴리전 뉴스서비스(Religion News Service)와의 인터뷰에서 “하메네이 아야톨라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탈출과 이주 계획을 보류하는 이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온 이란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날”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모두가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 정권의 종말인가 아닌가?’ 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슬람 공화국은 아르메니아계, 아시리아계, 칼데아 교회를 보호받는 소수종교로 인정해 의회 내 대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민족 공동체 외부에서 활동하거나 페르시아어로 예배드리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개신교 및 복음주의 공동체는 대부분 무슬림 가정 출신 개종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이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로 꼽힌다. 그 수는 약 100만~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신앙 활동은 주로 지하교회, 가정 모임, 온라인 예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l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가로 인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태양광, 솔라!!
 2026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 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6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교회는 공시세의 40%까지 인센티브 가능(Direct IRS)
BTS SOLAR DESIGN 213.500.8000

기독일보 지령 1,000호를 축하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공부한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습방식

미국 ATS 인가 프로그램

온라인 100% 트랙

학위과정별 전공

준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찬양과예배 전공, 크리스천상담코칭 전공), 사회복지학, 간호학(RN to BSN)
 석사과정 |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찬양과 예배, 글로벌리더십-코칭
 석박사통합과정 | 신학 전공, 음악학 전공, 예배학 전공, 상담학 전공, 리더십과코칭 전공
 박사과정 | 목회학, 음악연주학, 예배학, 실천신학(상담전공, 코칭전공, 목회와선교 전공)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문의 : wmuinfo@wmu.edu | www.wmu.edu
 홈페이지 QR

앤드류 K. 김 변호사, “한인들, 공적 영역에 책임 감당해야”

앤드류 K. 김(Andrew K. Kim) 변호사가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김 후보는 한인 사회의 정치적 참여 확대와 도시 현안 해결을 강조하며 “지금이 한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의 핵심 아젠다로 'Project Liberation LA'를 제시하며, 경제 활성화와 노숙자 문제 해결, 자녀 교육 기회 확대, 치안 및 공공안전 강화, 시정 행정 개혁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시정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김 후보는 “LA는 세계적인 도시이지만 경제적 양극화와 노숙자 증가, 치안 불안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Project Liberation LA는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시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개혁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교육을 미래 세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출마가 한인 사회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제시될 구체적 정책과 비전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클레어몬트 맥케나 대



앤드류 K. 김(Andrew K. Kim) 선거 캠페인 관계자들. (왼쪽에서 네번째가 앤드류 김 변호사) ©

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페퍼다인 대학교 법대에서 J.D.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탈북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이수했으며, 2000년대 초 LA 카운티 소액재판 임시 판사를 역임했다. 변호사로 약 30년간 활동하며 이민 사회와 관련된 법률 문제에 깊이 관여해 왔다.

선거 캠페인 총괄위원장이자 김회창 박사는 현 시장인 캐런 베스에 대해 “현재 지지율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시정 운영 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숙자 문제, 치안 불안,

대형 산불 재난 대응 미흡 등을 지적하며 “리더십 부재로 엘에이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인 사회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특히 노숙자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마약 문제와 정책 실패를 꼽았다. 그는 과거 마약 관련 사건을 다뤘던 경험을 언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치료와 재활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이후 중범죄 처벌 완화가 사회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앤드류 K. 김 후보는 14세에 1.5세로 미국에 이민 왔으며, 청소년 시절부터 한인타운에서 생활하며 이민 사회의 성장 과정을 지켜왔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도시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을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도시가 잘못된 방향, 즉 사회주의적 흐름으로 기울 수 있다”고 우려하며, 미국이 ‘기독교적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인 사회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한국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에 대해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빚을 진 존재다. 한인들이 공적 책임 의식을 갖고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2028년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도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회창 박사 역시 “대형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 능력과 시민 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순 선거캠프여성위원장(엘에이미션콰이어 단장)은 “한인 후보가 출마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가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현재까지 1200여명의 추천 서명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선거 규정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면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과반 득표 시 본선 없이 당선 결정된다. 김 후보는 “한인들이 정치적 자리매김을 해야 할 시대적 요구가 있다. 한인 사회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도시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곳이며, 시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토마스 맵 기자

AI 설교연구소 콘퍼런스 3월 10일

캘리포니아 프레시티지 대학교(CPU, 총장 이상명) 주최하는 '세상을 섬기는 설교와 AI' 콘퍼런스가 3월 10일(화) 오전 9시-3시 20분까지 캘리포니아 프레시티지 대학교에서 진행된다.

목회자, 신학생, 미디어 사역자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비는 무료이다. 현장 참석은 선착순 50명이며, 이후 신청자에게는 온라인 중

계 링크가 제공된다. (참가신청: 학교 홈페이지 참조)

콘퍼런스는 공동대표인 송병주 목사의 개회예배 및 환영사에 이어 김창환 학장(풀러신학교, 공공신학, 공적교회, 지혜문헌 전공)이 세션 1: 설교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지혜서 연구를, Elliot Chung과 Jay Wu(One Life City Church)가 세션 2: 지역사회를

섬기는 설교와 영적형성 사례(영어-한국어 통역)를 이끈다.

오후에는 조요셉 박사(ILC Lab, UBF CEO)가 세션 3: 설교자를 위한 AI 기초와 귀납적 성경연구 AI 소개, 이세영 소장(AI 설교연구소 소장)이 세션 4: AI for Social Good and Serving God을 이끈다. 주소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2026년 세계기도일 예배

2026 기도국은 나이지리아 3월 7일 10시 동양선교교회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주최 세계기도일 예배를 오는 3월 7일(토) 오전 10시 동양선교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세계 기도일 예배는 전 세계 170여 개국이 같은 날, 같은 주제로 드리는 국제 연합 기도운동이다. 139주년인 올해는 3월 6일 오전 11시에 전 세계에서 일제히 열린다.

올해 주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마 11:28-30)이며 올해 2026년 기도국은 아프리카 대륙의 서부 해안에 위치한 나이지리아이다. 1960년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했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인구가 많다. 신앙 분포는 무슬림 50%, 기독교 40%, 10% 기타 종교이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나이지리아

의 1) 기후위기, 2) 경제적 불평등 해소, 3) 차별 극복 및 사회 통합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이 예배는 1887년, 미국 장로교여성 국내 선교회(Woman's Board of Home Missions)의 의장(또는 회장)이었던 메리 엘렌 제임스(Mary Ellen Darwin James) 여사가 처음 시작했다. 당시 미국 이민자들이 정부와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보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날을 제정했다.

이 운동은 여성들이 주도한 초교파 기도 운동의 시초가 되었고, 이후 다른 교단 여성들도 합류하면서 확대되었다. 한국의 세계기도일예배는 1922년 일제강점기에서 시작됐다. 오늘날 전 세계 170여 개국 이상에서 매년 3월 첫째 금요일(남가주는 토요일)에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 주도 기도 운동으로 성장했다. 김민선 기자

덴버신학교 정성욱·정인경 교수 초청 강좌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며 오렌지 한인교회(정유성 목사)는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을 마련했다.

오는 3월 13일(금)부터 15일(주일)까지 정성욱 교수(덴버신학교 조직신학)와 정인경 교수(덴버신학교 리더십&연구 방법론)를 초청해 “말씀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평신도를 위한 신학강좌와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성욱 교수 강좌
3/13(금) 저녁 7:30 종말론
3/14(토) 아침 6:00 교회론
3/14(토) 저녁 6시 구원론
3/15(주일) 1-3부 주일예배
정인경 교수 세미나
3/14(토) 저녁 7:30 가정 세미나 1
3/15(주일) 오후 1:00 가정 세미나 2
주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차가운 감옥에 억류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족의 곁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앙과 동포애를 위해 일하다가 갇힌 김정욱 선교사(역류 4,000일 경과), 김국기 선교사, 최춘길 선교사 등이 생사와 건강조차 확인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모아 '북한억류 선교사 석방 청원 서명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서명 운동은 우리 국민이 그들을 결코 잊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연대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서명은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은 목소리는 달린 문을 여는 거대한 울림이 될 것입니다. 부디 서명에 함께하시어 억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억류된 선교사님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빛입니다.

주 최 북한억류 한국인 선교사 석방청원 서명운동 추진위원회
주 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성시화운동본부, KCMUSA, 중앙일보, 한국일보, GBC, 방송사 등
문 의 김학승 선교사 (213)352-6253, songjx0509@gmail.com

북한 억류 선교사 석방 청원 서명운동 4월 5일(주일)까지

QR로 제출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춘길 선교사

"그들의 이름이 잊히지 않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ANC 온누리 30주년 기념 말씀 집회 ‘아름다운 제자들’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ANC 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부산 호산나교회 담임 유진소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아름다운 제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집회를 열었다.

창립 30주년과 관련해, 김태형 목사는 “19세기 미 서부를 향해 미개적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가정과 관계, 세대간 이어져야 할 유산, 모든 것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선교지”라며 선교적 정체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란의 상황을 언급하며, “그곳에 부흥이 필요하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회복이 필요하다”며 전세계가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마지막 집회가 열린 3월 1일 주일 예배에서, 유진소 목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마태복음 5장 13~16절)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2016년 ANC 20년 사역을 마친 후, 부산으로 부임했던 때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는 부임 직후 영화 국제시장 촬영지였던 국제시장을 찾았으며, 그 영화 속, 흥남부두에서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한



ANC 온누리교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유진소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말씀집회를 열었다. © ANC 온누리교회

영화 ‘국제시장’ 아버지의 한 마디, 무거운 짐처럼 보였으나, 그의 삶을 붙든 축복... 진정한 권위로부터 ‘너는 무엇이다’ 그 한 마디가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

마디, “이제는 네가 가장이다”에 담긴 무게와 축복을 설명했다.

“이 한마디는 주인공 덕수로 하여금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가족을 책임지게 했다. 무거운 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의 삶을 붙드는 축복의 말이였다.”

그러면서, 국제시장 속의 이 ‘한

마디’처럼, “진정한 권위로부터 너는 누구다, 너는 무엇이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바로 그 선언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유진소 목사는, 이 본문에서, ‘소

금’이나 ‘빛’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기능’에 초점이 있다며, “소금은 짠맛이라는 기능으로, 빛은 비추는 기능으로 존재 가치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첫째, 소금은 깨끗하게 한다.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따라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그럴 때 세상에 자제적인 정화작용이 일어난다.”

“둘째, 본문의 “맛을 잃는다”는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 ‘모라이노(moraino)’는 ‘어리석다’는 뜻을 가진다. 즉, 의미를 잃는다는 것이다. 신앙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셋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주변을 살아나게 한다.”

그는 그리스도인 안의 이 기쁨에 과 관련해, 유명 카피라이터 이만재 작가의 책 ‘막짜낸 찌뽕’에 소개된 일화를 나누었다. “이만재 씨가 전도를 받아 다락방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분이 거기에 가서 짹짹 놀란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주만 먹고

도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기쁨이다.”

이어 빛의 기능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어둠을 몰아낸다. 그리스도인은 우울과 절망, 낙심을 거부하고 십자가 붙들고 어둠을 몰아내는 사람이다. 삶이 힘들고 감정이 흔들릴 때일수록 빛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고난과 실패, 좌절조차 아름다움으로 빚어낸다. 산 위의 동네가 아름다운 것은 각 집의 불빛 때문이다. 그 불빛은 멀리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켜는 것이다. 열방보다 안방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그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우셨다”며 “비난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붙들면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설교를 마치며 “특별히 삶이 힘들 때, 낙심하고 싶은 순간에 이 말씀을 잊지 말라. ‘내가 소금이다, 내가 빛이다’라고 기억하라”고 격려했다.

동양선교교회-히즈쇼 교육 협력 프로젝트 ‘다있다’

미주 한인교회의 신앙 교육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가 확대된다. 히즈쇼와 동양선교교회는 ‘미주 한인교회 교육생태계 회복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교회 및 미주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한국 교회학교 교사와 사역자 약 1,500명과 미주 한인교회 3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신앙 교육 교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지난 2025년 동양선교교회와 히즈쇼는 자체 VBS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위해 ‘미주 한인교회 VBS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약 150개 한인교회에 VBS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 바 있다.

올해는 이 프로젝트를 더욱 확장해 1년 동안 4~5개의 핵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매회 신청 교회 가운데 약 100곳을 선정해 신앙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3월에는 ‘교사대학’(오프라인 중심), 4월에는 ‘KID VBS 프로그램’(온라인 중심), 9월에는 ‘성경개



관’(오프라인 중심), 10월에는 ‘복음전도’(온라인 중심) 등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히즈쇼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동양선교교회는 프로그램을 미주 지역에 배포하며 협력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교육 사역을 담당하는 미주 한인교회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1회차 세미나는 3월 19일(목) 오후 6시 동양선교교회 비전센터에서 개최된다. 이후 2~4회차 세미나(강습회) 및 신청 일정은 동양선교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1회차 세미나 ‘다있다’
일시: 3월 19일(목) 오후 6시
장소: 동양선교교회 비전센터
전화번호: (323) 466-1234
신청: 동양선교교회 홈페이지

기독일보 · WMU 주최 ‘소그룹 사역 세미나’

15개 교회 선정 \$3,000 지원

기독일보와 월드미션대학교 소그룹사역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소그룹 사역 세미나’가 오는 3월 23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드미션대학교(500 Shatto Pl, Los Angeles)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침체된 지역 교회를 다시 세우고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돕기 위한 ‘지역교회 활성화’를 위한 소그룹 사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소그룹 사역의 목회 전략을 나누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소그룹 목회 모델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세미나에 참석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15개 교회를 선정해 각 교회에 3천 달러를 지원하여 소그룹 목회 지원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 지원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이날 신청서 작성에 대한 안내를 받고 교회의 소그룹사역의 현황과 앞으로의 비전과 구체적인 변화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15교회를 선정하



게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선정된 교회들이 목회 현장에서 소그룹 사역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목회 현장의 소그룹 노하우 공유와 소그룹 리더 훈련 프로그램 지원까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세미나 강사로는 유경재 목사(나성북부교회)와 이수호 목사(올림픽장로교회)가 나선다.

유경재 목사는 ‘소그룹 중심 목회 사역의 실제’를 주제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소그룹 목회의 경험을 나누며, 이수호 목사는 ‘말씀 중심 소그룹 구조와 실제 적

용 사례’를 통해 교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소그룹 운영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라며 “소그룹 사역을 통해 침체된 교회가 다시 살아 움직이고,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담임목사와 목회자, 교회 리더 및 소그룹 리더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등록비는 무료이고 참석자들에게 점심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213-434-1170으로 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기독일보와 월드미션대학교 소그룹사역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일시: 3/23 월 10-2시
장소: 월드미션 대학교
대상: 담임목사, 목사, 소그룹 리더
문의: 213-434-1170



직원420명, 전문의사(스페셜닥터) 38명 종합병원에서 드리는 종합 건강검진 혜택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산부인과 질 초음파는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진료합니다.

- ♣ 뇌MRI, 대장내시경 선택 1
- ♣ 수면 위내시경
- ♣ CT 촬영 (뇌, 폐 선택)
- ♣ 종양표지자 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갑상선 검사. T3, T4, TSH
(갑상선 항진, 저하)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간기능, 콜레스테롤, 심장질환 등 혈액검사 및 기본검사
- ♣ 산부인과 질 초음파
전립선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검진비용

~~\$1,250~~ **\$43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330불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양도 양수가능)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텔로유스, 바이오텍 비즈니스로 하나님 나라 확장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 텔로유스 바이오텍 본사(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에서 B.A.M(Business As Mission) 성공사례 발표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KINGDOM ENTREPRENEUR - 바이오텍 비즈니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다'를 주제로,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적 사명과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폴 김 디렉터와 버나드 정 대표의 비전 메시지, 그리고 두 명의 간증 발표가 이어졌다.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 텔로유스 바이오텍 본사에서 B.A.M 성공사례 발표 행사가 열렸다. © 기독교일보

폴 김 디렉터는 "비즈니스는 사명이고, 사명은 영향력이며, 영향력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제 분열을 멈추고 교파를 떠나 하나 되어야 할 때"라며 "세대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즈니스 선교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오늘을 투자해 내일의 리더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폴 김 디렉터는 텔로유스 B.A.M의 핵심 가치로 정체성, 창업가 정신, 영향력, 끌리는 힘, 이기는 자

의 삶을 제시하며 "킹덤 오버커머로서 믿는 자들은 이미 이기는 자"라고 말했다. 그는 "텔로 바이오텍이 플랫폼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서라도 복음을 전하길 기도한다"며 "성공과 부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의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 비즈니스, 코치 양성 시스템, 차세대 리더십 교육을 포함한 B.A.M 모델을 소개하며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사역이며, 가족

을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버나드 정 대표는 가문의 의료 배경을 소개하며 "의사의 길 대신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오렌지카운티에서 아동 사역을 하며 가정과 정서적 상처 문제를 목격한 경험을 나누고 "예수님이 치유와 말씀을 함께 주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생명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싶어 비즈니스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두 차례의 꿈 이야기를 전하며 "모든 세대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나 되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비전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세포 신호(Cell Signaling) 기반 기술력과 코치 양성 시스템을 통해 경제 성장과 선교 후원을 100% 매칭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경제 성장과 선교가 함께 가는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증자로 나선 김재종 장로(신경과 전문의)는 "2005년 전립선

암 4기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재발 진단을 받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PSA 수치가 400이 넘었으나 치료와 함께 텔로유스를 병행하며 두 달 만에 200 이하로 떨어졌고, 이후 1.5와 0.8까지 낮아졌다"고 간증했다. 또한 황반변성 증상도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조한웅(56) 성가사는 "당뇨 수치가 500에 달해 언제 심장마비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텔로유스 프로그램을 통해 수치가 크게 낮아졌으며, 전반적인 건강 회복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그는 "40-50대뿐 아니라 60-70대 이상까지 적용 가능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이며,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는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제품 설명을 넘어,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와 차세대 리더 양성, 그리고 실제 건강 회복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토마스 멩 기자

남가주 새소망교회, 13년 은혜 위에, 위로부터 난 지혜로

남가주 새소망교회(담임 김성원 목사)가 3월 1일 창립 13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지난 13년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렸다.

이날 예배는 김성원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유경현 장로가 대표기도를 맡았다. 특별찬양이 이어진 가운데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경봉독은 잠언 29장 18절과 야고보서 3장 13-18절 말씀으로 선포됐다.

설교를 전한 이상명 총장은 잠언 29장 18절과 야고보서 3장 13-1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사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잃을 때 교회와 성도의 삶이 방향을 잃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창립 13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 기독교일보

지혜와 세상적 지혜를 대조했다. 시기와 다름에서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된 지혜는 말이

아니라 삶의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장은 지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라고 전하며,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소망교회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붙들고 더욱 굳게 서가기를 축복했다. 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유한 지혜가 교회를 살린다"며,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도가 뿌리가 되는 공동체가 될 때 어떤 시대적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주년을 맞은 김성원 담임목사는 "지난 13년 동안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며, 지난 13년간 교회를 위해 흘린 헌신과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길 줄 믿는다고 말했다.

남가주 새소망교회는 2017년 9월 지금의 성전(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입했으며, 이후 말씀과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왔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공동체, 성경공동체, 선교공동체의 사명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조셉 리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홍리스미션)
 홍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주)대원 전자동 시설로 만든 왕김밥 4종
 새우튀김 김밥/매운 오뎅 김밥/참치 김밥/야채 김밥
교회 스페셜 무료 딜리버리
 10pcs 한줄 \$4.50 60줄 이상 주문가격
주문의 949-330-9033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안심하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2026" 달라지는 혜택, 많은 약 보험의 많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Annie Moon**이 필요하십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으실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 Disccaimer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40 Shatto Pl, #301., Los Angeles, CA 90020

SMG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홍보대사 **고두심**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15 organizations which offer 97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e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your options."



센터메디컬그룹



“아버지와 딸, **두 세대가 함께**하는 곳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명감, 사랑, 그리고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강신욱 대표 원장
 Shin Wook Kang, MD



헬렌 강 내과
 Helen Kang, MD



내과 진료

고혈압 | 당뇨병 | 고지혈증
 만성질환 | 예방접종 | 성인병
 각종 영양주사



시니어 전문 진료

노인성 만성 질환 | 근감소증
 식욕부진 | 만성통증 관리
 인지 기능 저하

강신욱 내과 INFO

2727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380.7077

월요일 - 금요일 | 9 AM - 5 PM

강신욱 내과 주치의는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합니다

美 국무부 인사, 김장환·손현보 목사 면담... 종교 자유 논의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를 각각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한국 내 종교 자유 문제와 최근 논란이 된 기독교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구속 사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스천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니드햄(Michael Needham) 미국 국무부 고문과 줄리 터너(Julie Turner)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은 24일 손현보 목사와 오찬을 겸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줄리 터너 부차관보 대행은 별도로 김장환 목사와의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보 목사 "종교 자유 및 개인·교회가 겪은 일 설명"
손현보 목사는 본지와 통화해



김장환 목사(좌)와 손현보 목사(우)

서 면담 내용에 대해 "한국의 종교 자유 상황과 제 개인, 그리고 교회가 당한 일들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한국 사회에서의 종교 자유 환경과 관련 수사 상황이 주요 주제였다고 전했다.

손 목사와 김장환 목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각각 구속과 압수수색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손현보 목사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수사와 구속이 정치적 보복의 성격을 띠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김장환 목사 또한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독교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종교 자유 문제와 기독교계 인사들에 대한 사법 조치가 국제적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美 정부 고위 인사들, 면담 내용 공유 예정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측 인사들은 손현보 목사와의 면담 내용을 J. D. 밴스 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에게 공유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번 면담이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니라,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종교 자유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각국의 인권과 종교 자유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방한 일정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美 정계·기독교계, 한국 종교 자유 문제에 관심 확대

최근 미국 정치권과 기독교계에서는 한국의 종교 자유와 기독교 탄압 논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SNS를 통해 한국의 종교 자유 문제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또한 J. D.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손현보 목사 사건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국 고위 인사들이 한국의 종교 자유 상황을 공식 회담에서 언급하면서, 관련 사안이 외교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 2024 자살자 5만 명 역대 최고치... 교회의 적극적 대응 필요

최근 진행된 2026 전미종교방송인협회(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이하 NRB) 주최 국제 기독교 미디어 컨벤션 포럼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정신건강 위기 문제를 진단했다.

크리스천데일리 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성경적 응답: 디지털 시대의 인간 번영과 웰빙'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자살률 증가, 소셜미디어의 심리적 영향, 트라우마 기반 사역, 목회자 번아웃, 신앙과 임상치료의 통합 문제 등을 다뤘다.

기독교 지도자, 의사,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널들은 "교회의 침묵이 위기를 심화시켰다"며 "교회가 낙인과 단순한 해법을 거부하고, 불안과 우울, 절망에 대해 성경적 토대 위에서 전인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널들은 연방정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자살 사망자가 약 5만 명에 달하며 미국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심대와 젊은 성인뿐 아니라 중년·노년층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헬시 페이스(Healthy Faith) 설립자로 건강한 신앙생활 프로그램을 연구해 온 캐리 셰필드(Carrie Sheffield)는 이를 "국가적 비상사

태"라고 표현하며, 종교 참여와 신앙 공동체가 자살률 감소와 회복력 증가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여전히 정신 질환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기독교상담가협회장 팀 클린턴(Tim Clinton) 박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리스도 중심 상담가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라우마와 정신건강을 이해하는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지정학적 긴장, 경제 불안, 학교 총격 사건, 스마트폰을 통한 과도한 정보 노출이 현재의 정서적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클린턴 박사는 "우리는 연결돼 있지만 동시에 고립돼 있다"며 외로움이 만연한 현실을 지적했다.

전미히스패닉기독교지도자회의 정신건강 이니셔티브 담당자 레이나 올메다(Reina Olmeda)는 성경 속 다윗, 엘리야, 한나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정서적 고통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현대 문화의 '포화 속도'가 성찰과 감정 처리의 여지를 빼앗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100명 이상의 목회자들과 대화한 경험을 소개하며 "많은

이들이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기도뿐 아니라 서로 곁에 머무는 '임재'가 중요하다"고 했다.

소셜미디어와 청소년 정체성 위기
소셜미디어가 특히 청소년 정서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셰필드는 소셜미디어가 특히 십대 소녀들의 불안, 섭식 장애, 우울증과 관련 있다는 연구를 소개하며 "비교의 문화가 뇌를 괴롭히고 생명력을 앗아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올메다는 "교회가 고난에 대한 성경적 이야기를 제시하지 못할 때 소셜미디어가 그 공백을 채운다"며 "교회가 침묵하면 세상이 대신 목소리를 낸다"고 했다.

내과 전문의 파멜라 파일(Pamela Pyle) 박사는 "현대 사회가 내적 갈등에 대해 외적 해결책을 찾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르완다 공동체 방문 경험을 언급하며 "공동체와 신앙에서 비롯된 희망이 회복의 핵심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클린턴은 교회가 오랫동안 상담을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낙인과 수



▲NRB 국제 기독교 미디어 컨벤션 패널 토론. ©CDI

치를 조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는 당신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니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라며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셰필드는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와 임원 경험을 공유하며 "트라우마를 무시하는 종교적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다. 올메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구분해야 한다"며 "명확한 진술이 수치심의 힘을 약화시킨

다"고 했다.

패널들은 목회자들이 짊어지는 정서적 부담도 논의했다. 교인들의 비현실적 기대가 목회자들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평신도 지도자 훈련, 정신건강 팀 구성, 설교단에서의 감정적 어려움 언급 등 체계적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신앙은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며 "목회자들에게도 상담과 책임감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중연, 김한우,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호, 구봉주, 국윤권, 김중규, 류용렬, 박은성, 박일서, 오영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킴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폴킴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E-mail : chdaily@christianitydaily.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당신께 맞는 의사, 찾는 병원

모두 SMG에 있습니다

5,500명의 전문 의사와 다양한 병원 네트워크와 함께
당신의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18개 연계 대형 병원

- UCLA
- 시더스-사이나이
- 할리우드 장로병원
- 세인트 주드
- 세인트 조셉
- 애너하임 리저널
- PIH 굿사마리탄 외

문의전화 _____

800.611.9862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카카오톡 채널에
방문하세요!

홍보대사 **고두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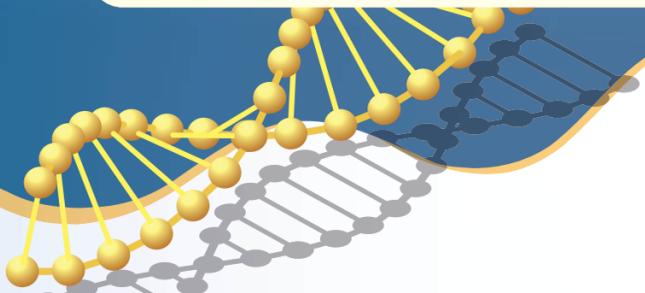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텔로유스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역노화로!

주요 라디오 · 신문이 주목한 텔로유스(TeloYouth) 젊음회복 프로그램

LA 라디오코리아, 라디오서울, 우리방송, CBS 기독교TV, NY 라디오코리아, NY K라디오, 아틀란타 라디오코리아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욕일보, 타운뉴스, 교차로, 밸리뉴스 등 주요 신문사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젊음 회복 기술, 텔로유스를 소개합니다.



건강의 '마스터 키', 줄기세포

텔로유스는

우리 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을 최대 3,600%까지 유도하는 10년 이상 앞서간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반의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몸 전체의 구조적 균형, 기능적 회복,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텔로유스의 핵심 특징

10년 이상 앞서간 최첨단 생명공학 세포신호 기술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 최대 3,600% 유도
온몸의 구조 · 기능 · 감정 체계까지 재생 & 회복

퀀텀 젊음회복 6개월 프로그램

패키지 \$2,478

무료
증정

새해 프로모션

\$2,478 패키지 구매시
텔로유스 파우더 한병(\$300)

12가지 국제인증마크와 제3기관 임상실험들, 그리고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텔로유스의 퀀텀 젊음회복 프로그램을 증명합니다!

- Dr.D**Kim님: 갑자기 찾아온 전립선4기암 진단은 60여년간 의사생활을 해온 나에게도 실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음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전립선암수치를 측정하는 PSA가 400에서 209, 1.5, 0.8로 떨어지는 기적을 맞보았습니다. 또한 황반변성이 좋아진 것은 신경과 전문의로서 가히 우리몸에서의 줄기세포가 불가능하다는 신경세포도 되살릴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 Dr.J**Park님: 22년간 가정주치의로 많은 환자들을 돌보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혈당은 약으로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높은 혈당으로 인해 다리부종이 심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혈당이 조정되며 붓던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A1C 가 8.1에서 7.3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이**님: 심장수술, 척장암수술에 이어 두번의 뇌졸중이 오며 워커로 겨우 걷던 것이 지금은 혼자 걸을 수 있고, 물조차 입으로 먹을수 없어 G-tube를 낀 채 생활한지 1년이 넘었는데, 젊음회복 프로그램 5개월째인 지금, 조금씩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 S**님: 친구들이 보톡스 맞았냐고 물어봅니다. 70대에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고 팽팽할 수 있을까 거울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 J**님: 지난 40여년 사용해오던 십여가지 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하루 생활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 이**님: 부끄러워서 숨기고만 있었던 발톱무좀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 W**님: 20년간 복용하던 우울증약을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정**님: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날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 D**님: 70대이지만 동창회가면 제일 젊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날마다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 레**님: 90대에도 소일로 발일하시며 마을에서 제일 건강하시다는 저의 노모의 건강은 텔로유스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 F**님: 공황장애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많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 R**님: 갱년기 증상들이 다 없어졌어요, 늘 피곤하면 나타났던 구순염도 이제는 더이상 나오지 않네요
- S**님: 평생 고생하던 천식때문에 기침을 달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나 멀쩡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 하*님: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뽐뽐 솟습니다.
- **자님: 80대에도 고운 피부와 젊은 에너지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 J**님: 10년동안 고생하던 혈당조절이 이제 정상으로 잘 됩니다.
- N**님: 딸인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던 엄마가 저를 알아보세요, 이걸 기적입니다!

그 외 수많은 체험사례들을 www.TeloYouthKorean.com 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임상실험 Clinical Studies |
|---|
| 인지기능 46.2% 향상/줄기세포배출량 377%. University of Miami |
| 우울증개선 Blefgeil Hospital, Kongsberg, Norway |
| 스트레스호르몬 50%까지 감소. University of Trier, Germany |
| 성욕구/만족도 University of Trier, Germany |
| 근육량 증가 University of Colorado |



이런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120세까지 건강하고 젊게 사시고 싶은 분들
- 역노화 (Reverse aging) 기술력으로 10년이상 젊어지고 싶은 분들
- 밤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 기운 없고 늘 피곤함
- 각종 염증으로 늘 고생함/ 스트레스를 못 이겨냄/ 의욕이 없고 우울함
- 장 트러블/ 소화력이 떨어짐/ 눈이 건조하고 침침함
-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짐/ 혈당조절이 힘들/ 통증에 시달림
- 몸의 여러 구조와 기능들이 만성적으로 고장나 고민하고 계신분들

Doctor 초청 세미나

- 기간 : 3월 14일(토)~15일(일)
- 일시 : 14일(토) Buena Park 9:45am
Laguna Wood 3:00pm
15일(일) 가든스위트 호텔 2:45pm
- 예약 필수 : 714-732-8477

[파트너 모집 | 40-50대 환영]

최첨단 생명공학 세포신호기술 기반
젊음회복 프로그램 전문 코치
의미 있는 일과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분

문의 : 레이첼 건강 수석 코치

☎ 714-851-8035



TELOYOUTH

www.TeloHealing.com

런던서 설교자 표현의 자유 논란



런던에서 경찰관이 무슬림의 항의에 맞서 설교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 © 유튜브 스크린샷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런던 동부 화이트체플 지역에서 기독교 거리 설교자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한 여성 경찰관의 대응이 온라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2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으며, 한 게시물은 50만 회 이상 조회되며 논란과 지지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영상은 무슬림 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화이트체플 거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한 기독교 설교자가 공개적으로 설교를 진행하던 중, 주변에 모인 일부 남성들이 그가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개입을 요구하는 장면이 담겼다.

“듣기 싫으면 자리를 떠나라” ... 표현의 자유 두고 현장 긴장 고조

영상 속에서 균중은 설교자의 발언이 모욕적이라고 항의하며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응한 메트로폴리탄 경찰 소속 여성 경찰관은 “당신들이 듣고 싶지 않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를 듣지 않으려면 자리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우리는 여기 산다”고 항의하자, 경찰관은 “하지만 그는 당신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다른 시민이 “이곳은 우리의 공동체”라고 말하자, 경찰관은 “당신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종교를 전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균중 중 한 명이 설교자가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경찰관은 “그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영상에는 설교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여

러 게시물에서 기독교 거리 설교자로 소개됐다. 이 장면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감수성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현장의 대응이 영국 인권법에 근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인권법 제10조 거론... “평화적 설교는 보호받는 권리” 평가

영국 일간지 더 텔레그래프에 기고한 표현의자유연합(Free Speech Union) 토비 영은 해당 경찰관이 “훈장을 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찰관이 상당한 압박 속에서도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토비 영은 “공공장소에서 평화적으로 설교하는 행위는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 제10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불쾌감을 느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은, 아무리 강하게 표출되더라도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러한 대응이 예외적인 사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국 내에서는 거리 설교와 관련해 체포 사례가 이어져 왔다.

거리 설교자 체포 사례 잇따라... 공공질서법 적용 논쟁 지속

지난해 11월 브리스틀 시내에서 설교하던 디아 무들리 목사는 이슬람과 성전환 이데올로기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를 밝힌 뒤, 1986년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에 따른 종교적 증오 선동 혐의로 에이본·서머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연 기자

남수단 수도 인근, 목회자 피랍 후 피살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남수단 수도 주바 인근에서 한 교회 목회자가 납치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2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이번 사건을 강하게 규탄하며 정부와 보안 당국에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하이 바라카 오순절교회(Hai Baraka Pentecostal Church) 소속 리노 파스칼레(Lino Pasquale) 목사는 지난 19일 곤도코로 지역 강가에서 낚시를 하던 중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곤도코로는 주바에서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이다.

이후 가족과 교회 관계자들이 수색에 나섰으며, 목사의 시신은 25일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측은 안전을 이유로 익명을 요청했다.

“괴한들에 의해 표적 살해” ... 교회 측 공식 성명 발표

수단 오순절교회(Sudan Pentecostal Church, SPC) 지도자들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파스칼레 목사는 정체불명의 무장 괴한들에 의해 표적이 되어 살해됐다”고 밝혔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번 비겁한 행위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큰 충격과 깊은 슬픔을 안겼다”며 “이 끔찍하고 의도적인 살인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전했다.

또한 남수단 정부와 모든 보안 당국에 즉각적이고 철저하며 공정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회 측은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며, 인류의 법과 남수단 공화국의 법 아래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범죄를 단호하게 다루지 못할 경우, 우리 땅과 국민의 평화와 정의,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교회와 지역사회 애도... “헌신된 복음 사역자” 평가

파스칼레 목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교인들과 가족들은 25일 오후 주바 서쪽 하이 바라카 지역 교회에 모여 고인을 추모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자 충성된 목자, 복음 사역에 헌신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교회 내부에서는 깊은 애도의 분위기가 이어졌으며, 공동체 전체가 충격과 슬픔 속에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14일에는 아프리카내륙교회(Africa Inland Church, AIC) 고위 지도자인 크리스토퍼 마링(Christopher Maring) 목사가 괴한들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AIC 부총회장 마틴 모가(Martin Mogga)에 따르면, 마링 목사는 지난 1월 14일 오후 7시 30분경 주바 구델레(Gudele) 지역 자택에서 정체불명의 무장 괴한들에게 총격을 받아 숨졌다.

교회 지도자 연쇄 피살 우려... 보안 강화 요구 확산

CDI는 남수단에서 최근 교회 지도자들을 겨냥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지역 교계가 불안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당국은 범행 동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목회자와 종교 지도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표적 살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반복되는 피살 사건이 지역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 월-금 오후 7:30
평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오전 9:15) 새벽예배 (월-금) 오전 5시
3부예배(바자세대에) 오전 11:30 (화-토)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성경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1세대)을 위로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386-2233

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LA씨티교회
인터넷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833-9090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엘리아 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CMC 중등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CMC소방부 오전 11:30 교육관 42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8 수요성경기도회 오전 10:00 분당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ice1@gmail.com

김일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강지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이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이수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라티노 오후 5:0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김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한현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 오전 6: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국윤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형영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가명훈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org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장미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바티칸구국제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제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진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반인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원부 오후 2:3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을 세우고 믿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성경인사예배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감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아침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수/금) (토/주일) 새벽 6:00
(월/수/금)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영아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부흥회 토요일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유영담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최원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영 기독교인 간호사, 징계 철회 후 복직...성별 호칭 논란 재판 앞뒤



제니퍼 멜. © CLC

영국 기독교인 간호사 제니퍼 멜이 고용 주와의 수개월간 분쟁 끝에 직장에 복귀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제니퍼 멜은 서리주 칼살턴에 위치한 세인트 헬리어 병원에서 근무를 재개했으나, 여전히 규제기관 조사와 고용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멜과 지지자들에 따르면 그녀는 현재 간호·조산사 협의회(NMC)의 두 건의 조사와 오는 4월 예정된 고용재판을 받고 있다.

멜은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한 환자를 남성 대명사로 지칭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환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소아성범죄자로 알려졌으며, 멜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월 병원 측 징계위원회는 멜에 대한 징계 사유를 철회했다고 확인했다.

기독교 법률센터(CLC)의 지원을 받고 있는 멜은 엠션 앤 세인트 헬리어 대학병원 NHS 재단 신탁을 상대로 괴롭힘, 차별, 보

복, 그리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고용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NMC는 환자 성별 호칭 문제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 의혹을 이유로 멜이 공공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멜은 "직장에 복귀하게 되어 기쁘지만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두 건의 NMC 조사가 진행 중이고 4월 크로이던에서 고용재판이 예정돼 있다. 나 자신뿐 아니라 양심과 신앙에 따라 두려움 없이 일할 권리가 있는 모든 간호사와 의료진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CLC 대표는 "이번 사건은 NHS의 성별 정체성 정책과 법의 조화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독교인 간호사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센터는 모든 과정에서 멜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美 뉴욕시, 하루 5번 모스크 활성화로 기도 소리 방송 논란



▲기도하고 있는 무슬림. ©FIM국제선교회 제공

뉴욕시에서 라마단 기간 동안 모스크 활성화로 인해 울려 퍼지는 이슬람 기도 소리(아잔)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CBN뉴스에 따르면, 많은 뉴욕 시민들은 새벽과 낮에 울려 퍼지는 아잔 소리가 생활을 방해한다며 소셜미디어에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무슬림 공동체는 헌법 수정 제1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이라며 이를 옹호하고 있다.

뉴욕시는 2023년 8월 29일, 모스크가 특별한 소음 허가 없이도 금요일과 라마단 기간 특정 시간대에 아잔을 외부 확성기로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종교 공동체의 권리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이뤄진 조치였다.

그러나 조람 맘다니(Zoram Mamdani) 무슬림 시장이 재임한 이후에는 아잔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다섯 번, 심지어 해 뜨기 전 이른 시간에도 확성기를 통해 울리고 있으며,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주거 및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까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고 한다.

무슬림 출신으로 《이슬람, 이스라엘, 그리고 서구》의 저자인 대니 버마위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닌 정치적 과시로 해석했다. 그는 "아잔은 과거 현대 전하나 알람시계가 없던 시대에는 기도 시간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필요하지 않다"며 "무슬림에게는 필요 없지만, 정치적 이슬람에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버마위는 모스크 확성기 방송을 "공공 영역을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신호"로 규정하며, "이는 종교적 자유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부 시민들은 "뉴욕은 카이로나 메카가 아니라 미국의 도시"라며 "종교적 표현이 공공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9·11 테러 피해 지역에서 새벽 5시경 울려 퍼지는 아잔 소리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종교적 의미뿐 아니라 역사적 상처와 연결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무슬림 공동체는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반박한다. 지지자들은 "확성기를 사용한 기도 소리는 미국 도시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온 교회 종소리나 기타 전통적인 종교적 소리와 유사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확성기 사용을 둘러싼 논쟁은 다른 민주당 주도의 도시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와 미시간주 디어본에서는 지역 조례에 따라 아잔 방송이 허용되지만, 시간과 음량 제한은 도시마다 다르다. 디어본 주민들은 "종교적 표현과 동네 평화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으며, 일부 시 위원회는 이른 아침 시간대 확성기 음량을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버마위는 뉴욕시 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슬람이 단순히 종교로만 분류되는 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이슬람을 정치적 이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미국 사회가 소수자의 종교적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지역 공동체의 평화로운 생활 환경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라는 오래된 과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강혜진 기자

美 기독교인 30% “AI의 영적 조언, 목회자 만큼 신뢰”

미국 신앙인 약 3분의 1은 “인공지능(AI)에서 받는 영적 조언이 목사에게서 받는 것만큼 좋다”고 답했다. 특히 실천적인 기독교인이 비실천적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보다 이러한 생각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번 데이터는 하나의 ‘교회 현황’(State of the Church)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수집됐으며, 신앙 생태계를 연결해 인류의 번영을 촉진하는 기술 플랫폼 글루(Gloo)가 함께 발표했다.

2025년 11월 미국 성인 1,514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0%가 AI의 영적 조언이 ‘목사의 조언만큼 신뢰할 만하다’고 했다. Z세대(39%)와 밀레니얼 세대(40%)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았다. 실천적인 기독교인의 34%, 비실천적 기독교인은 29%, 비기독교인은 27%가 동의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AI가 일상적인 영적 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독교인 10명 중 4명은 “AI가 기도, 성경 공부,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줬다”고 답했다. 또한 2025년 12월, 미국 내 개신교 목사 442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41%가 “성경 공부 준비를 위해 AI를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목회자들의 정확성도 드러났다. 실천적인 기독교인의 약 3분의 1은 기술 사용에 대해 목사의 지도를 원한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이에 대해 가르치는 데 편안함을 느끼는 목사는 12%에 불과했다. 바나 연구 부사장 다니엘 코플랜드(Daniel Copeland)는 “목회자들이 AI를 유익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신자들에게 제자로서 가르칠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바나 데이터는 AiForChurchLeaders.com과 Exponential AI NEXT가 발표한 2025년 12월 ‘교회 내 AI 설문 보고서’와도 맥을 같이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

면, 설교를 준비하는 교회 지도자의 거의 3분의 2가 AI 도구를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도구는 챗GPT와 그레머리였다.

또한 바나의 2025년 2월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 2,025명 중 61%가 “어떤 형태로든 기독교 미디어와 소통한다”고, 절반(51%)은 “매주 소통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기독교 미디어를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지만, 자주 소비하는 사람들 중 45%는 “내용이 분열적이다”라고, 40%는 “기독교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고 답했다.

글루 공동 창립자 스콧 벡(Scott Beck)은 “주류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가운데, 기독교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결과를 기독교 방송인들과 지도자들이 모인 행사에서 발표할 수 있어 영광이며, 각자의 도시로 돌아가 지역사회의 영적 성장을 돕는 사역에 영감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CP는 “최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교회 내 모든 사역에서 AI 사용이 80% 증가했으며, ‘텍스트 위드 지저스(Text With Jesus)’와 같은 앱을 통한 영적 지도 활용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텍사스 애빌린 제일침례교회 레이 밀러(Ray Miller) 목사는 “AI가 또 다른 종류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람들이 AI에 의지하는 이유는 목사나 신부가 곁에 없기 때문이며, 편리함 때문에 쉽게 의존할 수 있다. 교회와 신앙 전반에서 AI 활용에 있어 분별력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인쇄기 이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술 혁명 속에 살고 있다. 교회는 디지털 AI 시대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플로리다 침례교회서 예정된 보수단체 행사 돌연 취소



고 찰리 커크 대표(터닝포인트 USA). ©빌드업코리아 유튜브 캡처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침례교회에서 예정됐던 보수단체 행사 투어 일정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TPUSA)의 신앙 부문 투어가 당초 2월 25일(이하 현지시간) 퍼스트 침례교회 올랜도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이 취소됐다. 이번 행사는 TPUSA 창립자 찰리 커크의 미망인이자 TPUSA 최고경영자인 에리카 커크가 이끄는 전국 순회 복음 집회 ‘메이크 헤븐 크라우드드 투어’(Make Heaven Crowded Tour)의 일환이었다. TPUSA 신앙 부문 목회 관계 책임자인 집 무어는 지난 1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행사를 “잊지 못할” 대규모 집회라고 홍보하며 지역 지지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2월 25일 오후 6시 30분 올랜도에서 예배의 밤이 열릴 것”이라며 “역대급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은 그대로 남아 있는 반면, 투어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올랜도 일정이 삭제됐으며 교회 홈페이지에 연결돼 있던 행사 안내 링크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확

인됐다. 이에 대해 TPUSA 신앙 부문 수석 책임자인 루카스 마일스 목사는 “추가 검토 결과 이번 일정은 양측 모두에 최적의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교회와의 논의에 감사하며 향후 협력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투어가 전국 여러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퍼스트 침례교회 올랜도 담임목사 데이비드 어스는 2월 15일 설교에서 투어 주최 측이 몇 달 전 교회 측에 행사 개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는 모든 단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며 “행사가 예수가 아닌 다른 목적, 특히 정치나 정당과 관련된다면 교회에서 개최하기 어렵지만, 예수 중심이라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주최 측이 예수 중심 행사를 보장하고 연사 명단 검토를 요청했으며, 행사 말미에 세례식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회 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전했다. 다만 교회가 최종적으로 행사 개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점과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화-금) 05: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일예배 06:00AM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jjoonm0623@gmail.com

에베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이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레슬)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베베(민물레슬))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 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영양)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www.icccla.org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크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 동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일 3:33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 10:30 목요일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일 가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송금관 담임목사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어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상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참회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세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nwood Ave. Los Angeles, CA 90028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베르츠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축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초강력 정력제**

배에는 수반제거와 면으면서 귀중 증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70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OP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한미연합회 모의유엔팀 USC 모의유엔서 10개 상 수상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 산하 모의유엔 프로그램학생들이 지난 2월 28일과 3월 1일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SC)에서 열린 2026 SCMUN(Southern California Model United Nations) 대회에 참가해 단체팀에게 수여되는 '대표단 우수상(Outstanding Large Delegation Award)'을 수상하는 등 총 10개의 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대표단 우수상'은 팀 전체의 준비도와 협력, 토론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단체상이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사전

에 배정받은 유엔 회원국을 대표해 각 위원회에서 국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결의안을 작성하며 외교적 협상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개인 부문에서는 레이첼 최학생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진 권(Eugene Kwon) 학생이 유엔마약위원회(HCND)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에스터 박(Esther Park) 학생은 사회·인도주의·문화 위원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지아넬 김(Gianelle Kim), 소피아 김(Sophia Kim), 헬레나 이(Helena Lee) 학생이 장려상을, 조이 사이(Joy Tsai), 로이 노(Roy

Roh), 다니엘 한(Daniel Han) 학생이 격려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지도교사인 민디 이(Mindy Yi) 씨는 "학생들이 의제를 분석하고 자료를 연구하며 전략을 준비한 과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유니스 송 대표는 "올해는 단체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KAC MUN은 매년 모의유엔대회 참가와 자체 대회 개최를 통해 청소년들이 국제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협력의 가치를 배우도록 돕고 있다. 글로벌 감각을 갖춘 차세대 리더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 한미연합회: www.kacla.org

그레이스 김 개인전 '색이 머문 자리'

주재원인 남편을 따라 미국 생활을 시작하고, 귀국 후에도 자녀 교육을 위해 이민생활을 선택한 그녀는 한동안 붓을 들 수 없었다.

자녀의 독립과 함께 작가는 오랫동안 놓아 두었던 붓을 꺼내들었다. 그동안 미뤄왔던 학창시절

의 꿈, 그리움의 색이 되어 마음 속 깊이 남아 있던 꿈이 긴 잠에서 깨어 캔버스 위로 돌아왔다.

그레이스 김 작가의 개인전 '색이 머문 자리'가 오는 3월 14일(토)부터 23일(월)까지 E.K. 갤러리(관장 유니스 김)에서 열린다.

3월 14일(토) 오전 2시-5시까지 오픈링 리셉션이 진행되며, 갤러리는 월-토 오전 11시-5시까지 운영된다. (주일 Closed)

주소 1125 Crenshaw Blvd, LA, CA 90019

조셉 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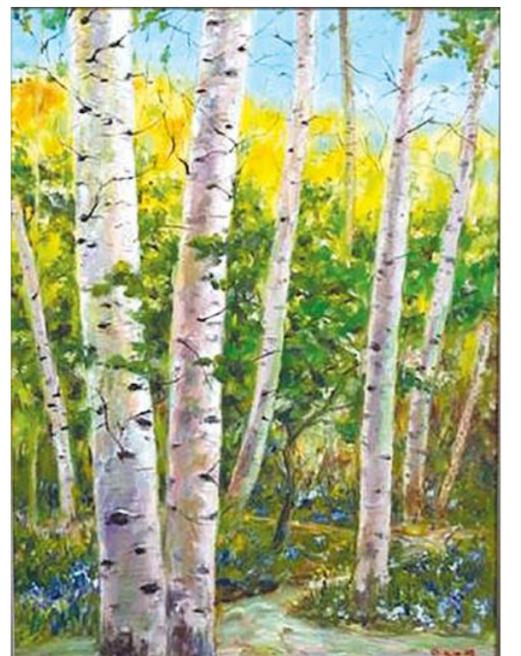
색이 머문 자리
GRACE KIM 개인전



2026.3.14 (Sat) - 3.23 (Mon)
11 AM - 5 PM

Opening Reception
2026. 3.14 (Sat) 2 PM - 5 PM

EK GALLERY
1125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EL: 323.272.3399
Gallery Hours: Mon-Fri: 11 am - 5 pm Sun: Closed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www.en.kurbanlike.com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견적 상담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Show Room

강준민 칼럼

독서 노트는 나의 유통 창고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는 생산업자가 아니라 유통업자입니다. 저는 일찍 제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생산하는 능력이 제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좋은 것을 유통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유통업이란 이미 존재하는 좋은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산한 지식이나 상품,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 주는 사람은 '유통자'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유통업이란 좋은 것을 혼자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흘러보내는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은 것은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나눌 수 있고, 받은 만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그 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배움도 받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어떤 책에서 무엇을 배웠다는 것은 소중한 지식을 전수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전수하는 것이 유통입니다. 저의 정체성 중의 하나는 유통업자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저술가입니다. 사실 저의 원초적인 부르심은 목회자입니다. 저술가로서의 부르심은 목회를 하던 중에 깨달은 부차적인 소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합니다. 복음을 유통합니다. 독서와 학습을 통해 전수받은 지식을 유통합니다. 정보와 지혜를 흘러보냅니다. 좋은 명언과 좋은 문장을 나눕니다. 묵상 중에 깨달은 것도 유통합니다.

제가 책을 읽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한 주간에 여러 권의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을 때 가능하면 독서 노트를 만듭니다. 유통하고 싶은 좋은 내용, 좋은 문장, 좋은 명언을 기록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제 독서 노트는 단순한 요약 노트가 아닙니다. 좋은 것을 흘러보내기 위해 준비해둔 '유통 창고'입니다. 그 안에는 설교와 글로 전하고 싶은 문장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깨달음도 담겨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이 좋은 글을 누구에게 흘러보낼까?"를 생각합니다. 읽는 순간, 이미 유통은 시작됩니다. 기록하는 것은 쌓아 두는 일이 아니라 흘러보낼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이번 주에 읽은 책에서 전수하고 싶은 문

장을 나눕니다.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걱정에 물드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의지로도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을 그만두는 것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걱정에 물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고, 하나님의 소망에 물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걱정이 생길 때,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산책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걱정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걱정할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걱정 대신 찬양해야 합니다. 물론 인생 여정에서 걱정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걱정에 물들고, 걱정에 사로잡히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고후 5:14).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진정한 행복은 자족과 만족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고기는 항상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말조심, 입조심에 대한 지혜입니다.

유통에 모범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을 전하셨습니다. 스스로 행하시기보다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내 교

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요 7:16).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요 3:34).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 예수님의 겸손은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밝히신 데 있습니다. 능력의 출처가 성령님이신 것을 밝히신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먼저 받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 또한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할 작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릴 복음을 흘러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고 유통하는 청지기입니다. 유통이 막히면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유통이 막히면 혼란이 생깁니다. 유통이 막히면 병이 듭니다. 그러므로 유통하는 사람은 성실해야 합니다. 충성되어야 합니다. 좋은 것이 머물러 썩지 않도록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충성된 유통업자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구봉주 칼럼

신앙의 범용성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장이자 금융 도구가 됩니다. 예전에 맥가이버 칼이라고 불리는 Swiss Army Knife가 있었는데, 지금 40대 이상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칼은 다용도 칼로써, 범용성을 한 예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가족여행 중에 늘 지참하던 칼이었는데, 여러 용도로 쓰여, 편리함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범용성은 AI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어떤 전문 분야만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알고, 또 그 다양한 지식을 통합하여, 전체를 이해하여, 영향력을 확장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단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능력입니다.

실제로 AI 인공지능이 사람의 전문성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필요하지만, 이제 사람에게는

AI를 활용하고 지시하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통합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최근 AI시대에 펼쳐질 미래를 걱정하는 나를 통찰력 있는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기초상식, 기초과학, 자연과학, 철학, 수학과 같은 사람과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녀를 범용적 인간, 즉 AI에 지배당하거나 일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AI를 부리고 사용하는 자로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은 특정 시간이나 공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의 예배 고백이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질 때, 믿음은 비로소 온전한 힘을 발휘합니다.

가정에서의 태도, 직장에서의 선택, 인간관계 속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신앙은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잘 세워진 믿음은 위기 속에서 흔들

리지 않는 중심이 되고, 성공 앞에서는 교만을 경계하게 하며, 갈등 속에서는 화해의 길을 찾게 합니다. 신앙은 삶의 한 부분을 장식하는 요소가 아니라, 삶 전체를 비추는 빛입니다. 어쩌면 가장 범용적인 것은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믿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일상 한복판에서 역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걸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특정한 순간을 위한 힘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하루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순간은 거룩한 쓰임이 됩니다. 신앙의 범용성을 믿고, 신앙 생활에 진지함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훈련과 실천의 기간으로!

사순절 기간 하루 한끼 금식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소망을 나눕시다

World Share USA 홍보 대사

(고) 전영대 목사 지형 교수

World Share USA 홍보 대사로 섬겨주신 **전영대 목사**님이 지난 2월 9일에 소천하셨습니다. World Share USA는 목사님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하였습니다...

World Share USA는 사순절 신앙 훈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순절 기간 중에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바른 신앙을 키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처럼 기도, 묵상, 나눔 그리고 선교가 실천되는 2026년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하며 사순절 신앙 캠페인을 펼칩니다! 목사님! 성도님! 교회와 성도들이 사순절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World Share USA 2026 사순절 캠페인 준비위원장 민영일 목사와 준비위원 들

2026 사순절 개요 시작일: 2월 18일~종료일: 4월 4일

World Share USA는 소망학교(아이티, 도미니카), 고아원(수리남), 진정 희생 유가족(우크라이나) 돕기를 합니다. 전쟁 희생 유가족, 전쟁 난민(우크라이나) 돕기를 합니다.

어떻게 참가할까요?

- 개인** 월드쉐어USA로 사순절 나눔의 금식에 참가 통보 (가능한 미리 공지 및 통보 해주시면 사순절 기간을 더 잘 보낼 수 있습니다.)하시고, 사순절 금식 선교비를 월드쉐어USA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교회** 나눔의 금식 참가의사를 월드쉐어USA에 알려 주시고, 성도들에게 참가를 권면하시고 성도들의 금식비 선교비를 월드쉐어 USA로 전달하십시오.
- 월드쉐어 USA** 전쟁과 극한의 추위에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 아이티, 수리남, 도미니카 공화국 등 극빈지역 아동들과 소망학교에 영적 양육과 성경 필사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2026 나눔의 사순절 섬기시는 분들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144명의 여왕 (4인1조)
 2026 최고의 전미주 **조선우먼'S** 골프 챔피언십을
 개최합니다 (아마추어 Golfer only)

비즈니스의
 든든한 파트너,

cbb Bank 와

함께하는

제 1회 전 미주 **조선우먼'S** 골프대회



Strawberry Farms Golf Club
 11 Strawberry Farms Rd., Irvine, CA 92612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 ▶ 접수 오전 9시30분부터
- ▶ 티오프 12:30 PM - Shotgun Start
- ▶ 참가비 \$185 (1인), \$740 (4인/팀당)
- ▶ 참가인원 총 144명(4인 1조)
- ▶ 부문 단체 대항전, 개인전 (일반부, 시니어부)
- ▶ 경기방식 개인 (Stroke Play)
- ▶ 조편성 단체 (상위 성적 3인의 스트로크 합산)
- ▶ 시상
 - 개인 및 단체 우승자에게 그린 재킷 수여 (챔피언 그린 재킷 시상식 포함)
 - 개인 메달리스트 (일반/시니어) 트로피와 부상
 - 단체 우승 및 준우승 트로피와 부상
 - 홀인원상 (2개 홀) 현금 2만불 (2개 홀 각 1만불씩)
 - 니어리스트 및 롱기스트 상패 및 부상
- ▶ 운영 프로헤드 및 전문 운영요원 배치 (USGA 및 로컬 룰 적용)

접수문의 (213)365-6800 | (213)315-5177 (박상신 본부장) - 접수마감임박 -
 4221 Wilshire Blvd., #224, L.A., CA 90010 • E-mail : chosunla25@gmail.com

주최 **ChosunDaily LA**
미주조선일보

*본 광고에 사용된 인물 이미지는 Chat GPT AI로 제작된 가상 모델입니다. The person shown is a virtual model created using Chat GPT AI technology.

*Getty Image Bank 광고용 이미지



- 상품 -

- 개인 및 단체 우승 및 준우승 수상자들에게 \$3,000 지급
- 개인 및 단체 우승자에게 그린 재킷 수여
- 한국왕복 항공권, 골프채 및 골프용품, 호텔숙박권, 마켓쿠폰, 식당쿠폰, 화장품, 생활용품 등
- 미주조선일보 전자신문 무료구독권 (참가자 전원)

후원업체



※ 라운드 종료 후, 클럽하우스 연회장에서 시상식 및 고급만찬, 최대의 풍성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사설] 성직자의 언어, 세인과 달라야 한다

집회 강사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목회자의 욕설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해당 교회뿐 아니라 교단으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본인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는 등 수습에 나섰으나 여론의 뜨거운 화살이 교단 임원 자격 시비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문제가 된 욕설 음성的主人公은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양육과 전도, 치유 사역으로 전국에서 집회 요청이 쇄도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한 그가 최근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 부목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음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공개된 파일엔 김 목사가 누군가에게 “XX

놈아” “개XX” 등 폭언과 욕설을 쏟는 음성이 담겼다. 이 파일이 공개된 후 김 목사의 욕설을 건디다 못해 사임했다는 전직 부목사의 증언이 잇따랐다. 현직 부목사들도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비속어와 욕설이 우발적인 게 아니란 점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 단발성으로 나온 게 아니라 최근까지 장기간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행해졌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욕설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김 목사는 최근 홈페이지 “과거 교역자 회의 발언 중 적절치 못한 표현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에 깊이 회개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회개하고 뉘우친다는 이 사태를 덮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부목사들이 고통을 건디다 못해 직을 사임한 마당에 이걸 원상 회복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당사자가 사과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예전의 사역을 회복해 다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욕설 파문은 급기야 교단으로까지 번졌다. 김 목사는 이 문제가 교단 내에 비판 여론으로 확산하자 고신총회에 자신의 부총회장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부총회장이자 자기 총회장 추대가 유력한 그의 욕설 파문을 임원 자격에 중대한 흠결로

보는 교단 내 중론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직자의 말은 세인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을 가진 이가 세상과 똑같은 언어를 내뱉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시정잡배처럼 거친 말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영적 감흥을 준다든 것 또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목회자 중에 비속어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 목사는 욕설 뒷수습에 급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부터 하기 바란다.

새라 김 칼럼

미연방대법원, 부모의 권리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준다



새라 김 대표
TVNEXT.org

모든 역경을 뒤집고 교사들 및 학부모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선사한 미연방대법원의 ‘미라벨리 대 본타(Mirabelli v. Bonta)’ 판결!

지난 3월 2일, 미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 내 “학부모에게 자녀 성별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정책에 도전한 ‘미라벨리(교사 이름) 대 본타(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 이름)’ 사건에 대해, 제9순회법원이 지난 1월 중순에 내린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권리를 확인해

주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6대 3이라는 압도적인 의견 차이로,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친 “학부모에게 자녀 성별을 비밀로 유지하라”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명령을 금지했으며, 자녀의 성전환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관행이 수정헌법 제1조 종교의 자유 조항과 제14조 적절절차 조항을 모두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는 주된 주체인 부모를 배제했다”고 단호히 판결했으며, 자녀 양육 및 교육 관련 결정에 대한 헌법적 권한은 정부 관료나 비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부모에게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미국 전국적 차원의 부모 권리에 있어 분수령이 되는 판결이며, 주 전역의 교육구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미연방대법원은 제9순회항소법원이 지난 1월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내린 판결이 왜 오류인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법무부 장관의 편에서 내린 판결이 왜 잘못됐는지를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부모들은 비밀리에 시행되는 성전환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으며, 집단소송 인정이 적절했을 가능성이 높아 해당 주 전역의 모든 부모와 교사에게 광범위한 보호를 보장할 수 있었다. 우리 대법원의 재판관들은 이러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비밀스러운 정책이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하급법원이 무시할 수 없는 부모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침해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미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학교에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됨을 의미합니다:

- 아동의 성전환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는 행위
 - 부모의 인지 및 동의 없이 학교에서 사회적 성전환을 조장하는 행위
 - 교사가 학생 가족을 잘못 인도하도록 하거나 거짓 내용을 전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이러한 조치는 부모의 정당한 역할과 권한을 회복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헌법적 경계를 명확히 해줄 것입니다.
- 결론 및 끝나지 않은 전쟁을 위한 기도제목**

이번 판결은 교육 분야에서 부모의 권한과 교사들의 권한을 둘러싼 싸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헌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전국 부모들에게 승리의 선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부모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판결은 주 전체에 걸친 학부모 배제 금지 명령을 복원했지만, 사건 자체는 이제 다시 제9순회항소법원으로 돌아갑니다.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정책의 궁극적 합헌성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항소심이 진행 중인 동안 하급법원이 지방법원의 보호 조치를 차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제9순회항소법원은 여전히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의 헌법적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짚어준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권한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의해서도 인정되도록 계속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칼럼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원망은 벌금, 감사는 상금!

며칠 전, 70대 초반의 선배 목사님 내외분,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정겨운 식사 자리를 가졌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던 중, 화제는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의 ‘투정’과 ‘입버릇’으로 흘러갔다. 그때 한 목사님이 잔잔한 미소 끝에 단호한 한마디를 던지셨다. “원망하면 인생이 망합니다.” 그 짧은 문장은 식탁 위의 공기를 단번에 바꾸어 놓았다. 목사님은 옆에 앉으신 사모님을 바라보며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기까지

하셨다. “앞으로 내 입에서 단 한 번이라도 원망의 말이 나오면, 즉시 벌금으로 1,000불을 내겠습니다.” 원망 한 번에 1,000불이구나.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영적 원리가 담겨 있다. 실제로 원망은 우리 삶에서 1,000불 이상의 가치를 앗아간다. 원망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부터 멧들게 한다. 원망을 내뿜는 순간 가장 먼저 듣는 것은 내 귀요, 상처받는 것은 내 영혼이다. 또한 과거에 매몰되어 불평하는 동안,

미래를 향한 문은 서서히 닫힌다. 목사님의 선언은 원망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비싸게’ 값아먹는지를 경고하는 강력한 브레이크였다. 그렇다면 감사의 상금은 얼마일까? 문득 궁금해졌다. 원망의 벌금이 1,000불이라면, 감사의 상금은 도대체 얼마일까? 감사는 계산기로 두드려낼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감사는 ‘복리에 복리를 더하는 하늘의 경제학’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상금이 주어진다. 첫째, 원망으로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스트레스가 치유된다. 둘째, 문제 속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물려오는 기적을 경험한다. 결국 감사의 상금은 ‘액수’가 아니라 ‘인생의 질(Quality)’ 그 자체로 돌아온다. 1,000불의 벌금을 피하는 소극적인 삶을 넘어, 측정할 수 없는 감사의 상금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신비다.

202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 | | | |
|---|--|---|--|
| <p>신입생 모집</p> <p>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p>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p> <p>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Tel : 662-903-4705</p> |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p> | <p>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p> <p>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p> <p>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p> <p>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p> | <p>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 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p>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p> |
|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 <p>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p> <p>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p> <p>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p> | <p>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
| <p>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p> <p>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857-2200</p> | <p>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p> <p>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p> <p>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lo@gmail.com 전화 1508-826-5145</p> | <p>FULLER THEOLOGICAL SEMINARY</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 <p>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p> <p>"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TS 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p>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p> <p>문의 (626) 653 9547 EXT. # 112/admin.korea@itsia.edu</p> |

KINGDOM ENTREPRENEUR

바이오텍 비즈니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다

텔로유스 바이오텍 B.A.M

Business As Mission 성공사례 발표

AI와 로봇이 인간의 지성과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 세상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 비즈니스는 사명입니다!
- ✓ 사명은 영향력입니다!
- ✓ 영향력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텔로유스 바이오텍은 단순한 제품이나 수익을 넘어, 세포 신호 소통(Cell Signaling) 기술을 기반으로 생명을 회복시키고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킹덤 비즈니스(B.A.M)'의 실제적 모델을 실현해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가로 부르심 받은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이론이 아닌 검증된 성공사례를 통해

- 비즈니스가 어떻게 선교가 되는가?
- 신앙과 기업이 분리되지 않는 실제 구조
- 생명 회복 기술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 영적 영향력
- 차세대 Kingdom Entrepreneur를 위한 비전과 기회를 실제 사례와 간증 중심으로 공유합니다.

- 일 시 : 2026년 3월 28일 (토) 오후 2:30
- 장 소 : 텔로유스 본사 (6820 Orangethorpe Ave, Suite G, Buena Park, CA 90620)
- 초청 대상 : Business as Mission 에 관심있는 모든 분과 차세대 창업가
- 신청 마감 : 3월 25일(수) 마감
- 신청 : 폴 킴 714-732-8477 (문자 혹은 전화 신청)
Joshua Kim 718-290-4739 (차세대 영어권 담당)



폴 킴
젊음 회복 프로그램 수석코치
텔로 바이오텍 뱀 디렉터



Dr. Chris Morris
세포 신호 폼물레이터



Dr. Tina Johnson
세포 신호 폼물레이터

Doctor 초청 세미나

- 기간 : 3월 14일(토)~15일(일)
- 일시 : 14일(토) Buena Park 9:45am
Laguna Wood 3:00pm
15일(일) 가든스위트 호텔 2:45pm
- 예약 필수 : 714-732-8477

자문위원

김재중 박사 : 신경과 의사/사우스베일로 한의학대학 교수, 현 라구나우즈 감리교회 장로
 양성전 목사 :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 GMS 동남부아프리카 선교사, 강영우 박사 장학회 사무총장
 필립박 목사 : 국제 나사렛교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교사, 뉴욕뉴저지 아시안 아메리칸 미니스트리 감독, 현 Awakening Souls Ministries Inc. 대표
 미미송 박사 : Reprogreen Homecoming Ministry 대표, GLDI 공동창설자, IPP 국제선정의원, 민족교류협 미주회장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기다림에 필요한 것, 하나님 향한 믿음

T 아닌 F만을 위한? MBTI로만 사람을 규정할 순 없어



〈기다림에 필요한 것들〉은 에세이 형식의 책이다. '멈춘 시간에 말을 걸다', '불안에 손 내밀다', '조조함을 녹이다', '빈손을 꼭 쥐다', '마침내, 조용히 찾아드는 은혜'라는 제목을 붙여 총 5개 장으로 여러 글을 분류하기는 했지만, 형식상 이 책은 각 짧은 에세이를 통해 저자가 느끼고 생각한 기다림에 관한 교훈을 독자와 공유하려는 목적을 지향한다.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거나 설명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모든 글에 하나님 이야기가 가득하다.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오래 기다리면서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일어나 뒤섞이는 것처럼, 이 책은 기다림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 헤매는 우리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다.

그렇다 해서 저자가 독자를 무수히 많은 생각의 물살에 표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다. 저자 구현우 목사는 결국 독자로 하여금 기다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바라보도록,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간절히 구하도록 이끌어 준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해 보기로 한다.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서 오래도록 함께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그러니 다시 이렇게 말해 본다. '하나님, 다시 씩씩하게 기다려 보겠습니다'(13쪽)."

저자 구현우 목사는 현재 워더치(WeTheChurch) 담임으로 섬기고 있고,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과 선교신학을 공부했다. 2021년 Passover 출판사에서 〈말씀이 임하는 사람: 큐티, 하나님이 다루시는 손길에 나를 맡기는 시간〉이라는 책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나온 〈기다림에 필요한 사람〉과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에세이 형식으로 주제를 다룬 책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저자는 H. B. 찰스 주니어인데, 그는 '설교에

관하여(On Preaching)'와 '목회에 관하여(On Pastoring)', '예배에 관하여(On Worship)'라는 책으로 각 주제를 다루면서 에세이 형식을 굉장히 잘 살렸다.

찰스 주니어의 책과 비교하자면 구현우 목사의 글이 훨씬 더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다. 찰스는 각 주제에 관해 자기 생각을 여러 예화를 곁들여 설명하면서도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뚜렷이 보이는 반면, 구현우 목사는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느낀 감정들을 떠올리며 독자의 마음에 최대한 가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인다.

하나님께서서는 참으로 사람을 다양하게 창조하셨다. 생각의 방식과 기질의 특성이 모두 다르다. 그래서 기다림을 견디는 모습도 천차만별인 것 같다. 또 상대적으로 별 것 아닌 것을 인내하면서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큰 시험과 고난 중에도 담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저자가 묘사한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과 처지가 크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생각하거나 느껴본 적은 없는데'라고 이질감이 갖게 되는 부분도 있었다. 물론 다른 성향과 기질을 가진 독자는 자기 마음을 완전히 들여다보고 묘사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기다림에 대한 사람의 마음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너는 나만큼 기다려본 적이 없어서 그래' 혹은 '저 사람은 기다리는 태도가 왜 그렇게 부실한 거지?'라는 비판의 시각으로 서로를 보지 말아야 한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결국 혼자 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173쪽)".

사실상 모든 사람은 기다림 중에 있다. 인내의 경주를 하고 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연약하고 부패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다는 것이다." ©픽사베이

한 육신을 벗어버릴 날을 기다린 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인내하고 연단받고 복음이 약속한 영화를 얻게 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기다림에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방식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더 뚜렷이 보여주게 말해주는 것이다.

구현우 목사의 책 〈기다림에 필요한 것들〉이 기독론이나 구원론을 다루는 신앙 서적만큼 뚜렷하게 진리로 그리스도를 비취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어루만지고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이 책을 T가 아니라 F를 위한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MBTI로 사람을 규정할 수는 없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로와 돌봄이 필요한 존재다.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저자가 의도한 것처럼 함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빚어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 기다림이 쓸데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보배롭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거
든 알게 하시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시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26



I have made you known to them,
and will continue to make you
known in order that the love
you have for me may be in them
and that I myself may be in them.
JOHN 17:26

출가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지령 1000호를 축하합니다

+ 이종걸 통증 재활 병원
재활의학과 미국 보드 전문의 MD, QME

이종걸 재활의학과
(PETER C. LEE, M.D.)

- 이민국 지정병원
- 주정부 검사관
- 관절치료/ 통증치료/ 물리치료
- 근육신경/ EMG(신경근육검사)
- 관절내시경
- 직장상해/ 사고전문
- 연골증식주사/ PRP
- Fluoroscopy 시술
- 신경차단시술(RF Block)

323-469-1000 4805 Rosewood Ave. Los Angeles, CA 90004 (동양선교교회 앞)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반종교개혁의 미술

종교개혁가들 요구 거부하고 성상 숭배 강화한 이들

르네상스 거부, 중세 회귀 시도
성인 유해 공격, 성상 숭배 유지
트렌트 공의회, 미술가들 규제
예술가 상상력·창의력 큰 위축
교회 미술 퇴보, 마리아 강조돼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 덧칠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 등 종교개혁가들은 각자 온도차는 있지만 가톨릭교회의 성상과 성화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교회가 영적으로 쇠락하다 보니 가시적인 형상에 집착하게 되고 교회 외관을 사치스럽게 꾸미는 등 '신앙의 외재화'에 몰두하게 된 것이 배경이 됐다. 개혁가들은 이런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성상 무용론을 펼쳤다.

한편 로마가톨릭교회에서는 종교개혁에 맞서 가톨릭교회의 교리와 전통을 재확인하고 내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트렌트 공의회(Concilium Tridentinum, 1545-1563)를 소집했다.

반(反)종교개혁(Contrareformatio)의 특징 중 하나는 중세 때 교회가 장악했던 것처럼 교회의 지배 체제로 되돌아가고자 했다는 점이다. 르네상스의 인문주의가 이룩한 모든 업적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종교개혁 발전에 큰 역할을 한 합리주의는 반종교개혁자들에게 배척 대상이었다.

먼저 트렌트 공의회는 종교개혁가들의 성상 철폐 주장에 반발하며, 오히려 성상 숭배

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 그들은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하는 것과 성상을 숭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가톨릭교회가 종교개혁가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신학자들은 성상이 우상 숭배의 대상물이 아니라 신앙심을 고취시키며 가톨릭 교리교육에 필수적인 수단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게 됐다.

교황 그레고리우스(Gregory I, 540-604)가 말한 '문맹자의 책(books of the illiterate)'이라는 용어도 다시 등장했다. 트렌트 공의회는 1563년 제25차 회기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머니(Theotokos)인 마리아, 그리고 다른 성인들의 성상들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형상화되어야 하고 보존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존경심과 숭배심이 주어져야 한다. ... 다만 이 성상들이 받고 있는 존경심은 이 상들이 표상하는 원형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맞춤을 하고 그 앞에서 모자를 벗고 엎드리는 성상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성인들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다. (Anthony Blunt, Artistic Theory in Italy 1450-1600, 조항순 역,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론』, 미진사, 1990, 165쪽)”

공의회가 끝난 후에도 개혁가들이 제기한 이슈는 해소되지 않았고 가톨릭교회의 우상 숭배 역시 지속됐다. 성상은 그에 걸맞는 '존경심'과 '숭배심'을 가져야 하며, '입맞춤을 하고 모자를 벗고 엎드리는'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것이다.

물론 트렌트 공의회에서 약간 진전된 점도 찾아볼 수 있다. 소위 '이미지 기적'으로 불리는 치유를 간구하는 미신 행위에 대해 교회의 남용 금지와 통제 강화를 통해, 이교도적 부분들의 확산을 경계했다. 공의회는 미술가들에게 '대코림(단정함)'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이교적이거나 세속적·외설적 부분 등 부정적 요인을 줄이는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가 하면 미술가들에 대한 규제를 공식적으로 시행했다. 공의회 법령 가운데는 “그릇된 교리를 시사하거나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지도 모르는 성상은 어떤 것이든 보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 “성스러운 공의회는 그 누구도 주교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교회나 어떤 다른 장소에 이상한 성상을 갖다놓아서도 안 된다”는 조문을 추가해, 감독(주교)의 승인 없이는 어떤 새로운 성상도 교회에 설치되거나 배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교회의 지배

체제는 공고화된 데 반해, 예술가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크게 위축됐다.

종교개혁가들의 비판을 피하고 수습책을 강구하기 위해 여러 법령을 제정했지만, 결국 교회 미술은 퇴보했다. 바깥 세계에 대한 관심을 잃고, 새로운 소묘법과 구도를 개발하는 것과 감정에 호소하는 색채를 개발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였다. 교회 입김이 더 강해지자, 교회 미술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

그 문제는 마리아상에서 뚜렷해졌다. 가톨릭교회는 이전부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모 승천이나 원죄 없이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뜬 이미지에서 신자들이 그녀의 보호 아래 모이는 장면까지 '가장 자비로운 변호자(Salve Regina)'로 인식해 왔다.

이 방면의 대표적 화가가 루도비코 카라치(Ludovico Carracci)였다. 루도비코의 <마돈나 데이 스칼치>(1590년경)는 무염시대의 특을 입었다고 알려진 마리아를 제작했다.

그림에서 우리는 공중에 떠 있는 마리아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라파엘로가 시스티나 성모상에서 사용한 적 있는 도상 기법을 상기시킨다. 공중에 떠 있는 마리아는 후에 원죄 없이 잉태한 마리아와 성모승천을 재현하는 기준이 됐다.

루도비코의 화풍은 그의 제자 귀도 레니(Guido Reni)가 이어받았다. 1627년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를 위해 제작한 <무염시대>(The Immaculate Conception)에는 성인, 교회박사, 그리고 아기 예수를 생략하고 세 천사의 부축을 받으며 초승달 위에 떠 있는 마리아 단독상을 제작했다.

마리아가 하늘을 우러러보는 동안 수많은 케루빔들(Cherubims)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다. 성경은 마리아의 죽음에 관해 침묵하지만, 그림에서는 마리아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무리요(Bartolome Estaeban P. Murillo)의 <무염시대>(1678)에서 마리아는 푸른 망토 아래 순결을 상징하는 흰옷 차림으로 등장한다.

엘리자베스 레브(Elizabeth Lev)는 이 그림이 “완벽한 순결(백함)과 기도(묵주 기도를 위한 장미)를 통해 마리아가 승리(종교 나무)와 영원한 평화(올리브)로 나가도록 도와준다”고 썼지만, 사실상 무리요의 그림은 가톨릭 교리를 홍보하는 선전물에 불과하다 (Elizabeth Lev, How Catholic Art saved the Faith, Sophia Institute Press, 115-127쪽).

마리아 숭배가 팽배하게 된 데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가톨릭교회



▲루도비코 카라치, 마돈나 데이 스칼치, 캔버스에 유채, 1590년경.

의 '중보(intercession)'도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된다.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중보'는 그리스도 한 분께만 해당되는 독점적인 것이다.

반면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중보자'로서 특별한 위치를 지닌다고 여겨, 신자들을 위해 중보하거나 '전구(轉求)'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나 '중보자 마리아' 교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존엄과 능력을 침해한다. 성상과 성화를 통해 죽은 성인들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까지 열어놓은 '성인통공(聖人通功, Communio Sanctorum)'으로, 가톨릭교회는 끝내 성상 숭배와 절연치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트렌트 공의회 이후 가톨릭 국가에서는 르네상스 시기보다 시각예술이 제약을 받게 됐다. 심지어 '르네상스의 거장'으로 불리는 미켈란젤로마저 이런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최후의 심판>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상이 알몸이며 도덕성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궁지에 몰렸으니 말이다. 교황 바오로 4세의 지시로 주요 부위에 천을 덧그려 결국 원작을 훼손하고 말았다.

그만큼 교회의 지배력이 미치는 곳이 없었다. 르네상스 미술 연구가 앤서니 블런트(Anthony Blunt)가 반종교개혁의 미술을 '봉건적이고 중세적 상태로 되돌아간 운동'으로 평가한 이유를 알만 하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귀도 레니, 무염시대, 캔버스에 유채, 268x185.4cm, 1627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2026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 수 있습니다.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사과정(B.Th) 목회학석사과정(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하메네이 사망 이후, 이란은 어떻게 될 것인가?

2월 28일(이하 현지시간)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투기와 미사일로 이란을 공격했다. 이란은 즉시 반격하며 이스라엘과 중동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1. 몇 주 동안 미국과 이란이 몇 차례 협상을 했으나 그것은 외교적 요식행위였을 뿐, 예상대로 아무런 타협점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요구 조건들에는 이란 이슬람 정권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핵폐기 협상이라 하지만 그것은 대외용이고, 실체는 핵폐기는 당연히 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 폐기와 더 나아가 50년 이슬람 독재정권 교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아파 이슬람 혁명사상으로 무장된 하메네이(Ali H. Khamenei) 이슬람 성직자 독재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란의 개방이나 민주화 등 변화는 불가능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란이 친서방 국가로 회귀하기를 원한다. 이는 곧 이란의 근본적 정치·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메네이 정권은 미국 측 요구를 거부하고 전쟁을 택했다. 미군 전력의 40% 가량을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집결시켰는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으리라는 주장은 처음부터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었다. 이란도 이를 잘 알고 있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핵무장 포기는 물론이고 이슬람 정권 교체가 어젠다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F35 전투기로 이란



▲이란 하메네이 사망 보도 화면. ©YTN

미국-이란 협상 타결 안 된 이유 하메네이 독재정권 교체 요구 美 전력 40% 이란 해협 집결시켜 공격 없으리란 주장 불성립 이스라엘, '표적 암살' 전략 구사 지상군 없이 제압 가능한 단기전 美, 이란 독재정권 교체가 목표

최고 지도부 40여 명을 첫날 제거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지난 50년 봉쇄로 인해 이란의 공군력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위성 시스템을 통해 이란 지도부의 동선과 은신처를 계속 파악하고 표적 공격 타격을 설정해 왔다. 만약 전쟁이 일주일 더 지속되면, 더 많은 지도부가 표적 암살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일찍이 '표적 공격'으로 주요 지도자를 암살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구사해 왔다. 과거 유럽에서, 또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전쟁, 카타르 하마스 지도부 제거에도 동일한 방법을 구사했다.

혹자는 국가가 왜 표적 암살을 공공연히 하느냐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것은 암살이 아닌, 전쟁의 한 형태이다. 전면전을 하면 얼마나 많은 군인과 민간인

이 피해를 보겠는가? 소수 지도부 암살로 전쟁의 승부가 난다면, 이것이 더 좋은 전쟁 방법 아닌가?

아무튼 이제 세계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첨단위성과 미사일, 드론, 전투기를 활용한 표적 공격 암살로 전쟁 양태가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전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한 기업이 피터 티(Peter A. Thiel, 1967-)이 창립한 미국 팔란티어 테크놀로지(Palantir Technologies Inc.)이다.

미국 국방부는 이 기업의 도움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며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도 체포한 바 있다.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도 결국 제거되었다.

2. 하메네이 이후 이란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자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국 트럼프 정권이 궁지에 몰릴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 양상이 최첨단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전쟁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과거 베트남이나 이라크 전쟁을 회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바뀐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전쟁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 미군이 지상군을 이란으로 진입시켜 전쟁을 한다면 장기전이 되고 미국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겠지만, 미국은 결코 지상군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지상군 없이 이란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트럼프는 11월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고, 미국은 레임덕으로 대환란에 빠질 것이다. 트럼프 정권이 이런 식으로 어리석게 전쟁을 질질 끌고 갈 리가 없다.

문제는 하메네이가 제거됐으나 대안 세력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원하는 이란 정권 교체나 체제 전환은 이번 전쟁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 이란 대통령이 군부 특정 세력과 손을 잡고 친서방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이란'을 선언하든지, 군부 특정 세력만이라도 이렇게 전환한다면 가능은 하다.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새로운 이란을 요구하고 현 이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가능한 빨리 내부에서 시아파 혁명노선 포기, 중국과 관계 재고, 친미 친서방이라는 새로운 노선이 등장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계속 이란 지도부 표적 공격을 계속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미군은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즉시 그 지점을 타격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란군 전력을 초토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란의 미사일 반격이 멈추면, 이란은 사실상 굴복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따라서 미사일 반격이 멈춘 이후 이란 내부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새로운 내부 세력이 등장하지 않으면, 이란 성직자 그룹과 혁명수비대는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체제 유지에 간간힘을 쓸 것이다. 표적 암살 공격과 내부 단속 및 재결집 사이에 어느 것이 우세할지 봐야 한다.

아무튼 전쟁 상태가 한 달 이상 갈 경우 어렵게 되는 건 사실이다. 미국은 일단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했고 핵시설 파괴, 미사일 기지 초토화 등 이란에 엄청난 군사적 타격을 주었으니 일단 성공으로 자평하고 뒤로 물러나, 11월 선거 이후 다음 기회를 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미국은 이란 핵무기 완전 포기, 장거리 미사일 제거, 시아파 독재정권 교체를 이번이든 다음이든 반드시 이루려는 것이다. 이란의 정권 교체는 아랍권 모두 원하고, 이란 국민들도 70%나 원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터키(튀르키예)만 이란의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이란이 지난 40년 간의 노선을 포기하고 새롭게 노선을 전환한다면, 10년 내에 중동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최바를 선교사 인터콧선교회 본부장

페루 신임 대통령 발카사르 취임... 복음주의 지도자 우려 표명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페루 신임 대통령으로 임명된 호세 마리아 발카사르(José María Balcázar)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수년간 반복된 대통령 교체와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이뤄진 이번 임

명은 페루 민주주의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페루복음주의협의회(CONEP) 회장 엔리케 알바(Enrique Alva)는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 스페인어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상황이 제도적 불균형과 권력 집중 문제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

민주주의 체제에서 또다시 대통령이 교체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알바 회장은 최근 페루 정치의 불안정성이 대규모 사회 시위가 아니라 의회의 결정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가 공적 합의 없이 헌법 조항을 여러 차

레 수정해 왔다고 지적하며,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페루에는 삼권 간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권력 분립이 약화될 경우 민주주의는 왜곡되고 조작 가능한 체제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러한 발언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대통령 탄핵과 임시정부 수립 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피로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 분석가들 역시 이번 임명이 뚜렷한 이념적 방향성보다는 의회 내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발카사르 대통령의 등장은 정당 간 연합 구도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일부 정치 세력 간 갈등을 촉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엔리케 알바 회장은 신임 대통령의 경력과 지도력에 대해서도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페루가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 대표성의 위기, 정치적 리더십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학생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규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 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 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mgamsa

문선영의 머니토크
“아들이 어뉴이티는 절대 하지 말래요. 에이전트만 좋은 일래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씨 저는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64세 미세스 오 입니다. 저희 부부 막상 은퇴를 하려니 뭐 변변하게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67세인데 직장에서 401K 가 있는데 아들과 딸 결혼할 때 각각 집 다운페이를 저희 남편 401K에서 조금씩 빼서 해줬습니다. 후회는 안하는데 지금 보니까 401k에 남은 돈은 18만불 밖에 안되고, 저는 IRA에 가지고 있는 돈이 10만불 정도 입니다. 둘이 합쳐 28만불인데 거기에 소설로 생활하는 것도 넉넉치 못해 이리 저리 궁리 중입니다. 여기에 차라리 이미 페이 오프 한 집을 줄여서 작은 콘도로 이사를 가고, 남은 돈 30만불 정도를 합쳐서 남편의 401k 18만불, 제 IRA 10만불 그리고 집 팔고 남은 돈 30만불을 합쳐서 58만불에서 50만불을 어뉴이티에 넣으면 어떨까 싶어 문선영씨에게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하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아들이 집에 놀러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뉴이티는 에이전트만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절대 하지 말라며 아들이 자기에게 맡기면 주식으로 돈 불러 주겠다고 걱정 말라고 합니다. 진짜 어뉴이티가 아들이 말한 대로 에이전트만 좋은 일 시키는 플랜인가 걱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다 믿을 수도 없고, 문선영씨의 유투브를 정말 잘 보고 있으면서 이런 저런 공부들 참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 같이 이런 어리석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일단 아드님이 말씀 하시는 어뉴이티가 에이전트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와 편견에 대한 얘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은퇴플랜에서 고정인컴을 받아 쓸 수 있는 어뉴이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85세까지만 살아도 장수했다 하는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100세까지 살까봐 무섭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50만불이라는 돈을 일년에 5만불씩만 꺼내 써도 10년이면 선생님들 74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불을 넣어 놓고 100세까지 무조건 딱딱딱딱 한달에 3천불씩 혹은 3천5백불씩 보장되어 매달 나오 는 그런 어뉴이티 연금을 가입하시면 100세까지 쓰신다 해도 126만불에서 백오십1만5천불을 찾아 쓰는 플랜입니다. 50만불을 넣어놓고 언제부터 찾아 쓰느냐에 따라 백 2십 만불에서 백 5십만불을 원금의 세배까지도 찾아 쓰는 것이 어뉴이티인데, 장수 시대에 걱정 없이 월급처럼 소설 연금처럼 꼬박 꼬박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 돈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부족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게 바로 연금 어뉴이티이죠. 그런데 이런 연금 어뉴이티 플랜이 에이전트에게만 좋다고 생각하는 오해와 편견은 다음 두가지 때문에 야기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 어뉴이티에서 받는 돈이 2% 4% 정도 밖에 되지 않

는 과거 어뉴이티를 생각해 보면 수익이 적으니, 내가 투자하는 것이 더 이익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평균 8% 까지도 내가 받는 금액의 수익이 더 높은 어뉴이티, 요즘 얼마나 좋은 어뉴이티가 많은데 이런 어뉴이티를 찾아서 플랜을 가입하면 되는 거고요, 둘째, 내가 어뉴이티에 돈을 넣어 놨더니, 에이전트가 내 돈에서 커미션을 다 받아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데요. 투자성 어뉴이티로 들어가게 되면 매년 에이전트가 투자에 따른 Fee를 받아 가는 경

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성 어뉴이티가 아닌 주식 간접투자로 주식만 큼 이자를 받지만 내 돈을 한 번도 잃지 않고 Fee 같은 비용이 나가지 않는 어뉴이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평생 고민 없이 100세까지 돈이 나오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고, 내가 넣은 돈에서 에이전트가 커미션 떼어 가지 않고! 어뉴이티 정말 전문가가 잘 고르시면 선생님께 최고의 은퇴 플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까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이었습니다.

Sunyoung Moon
 Financial Professional | 재정전문가
626.827.9599
 SYMOONMONEYTALK@GMAIL.COM
 WISECALIFORNIA 문선영의 머니토크 왕 리모노는 문선영의 머니토크

지역교회 활성화를 위한 소그룹 사역 프로젝트

소그룹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 세미나 참석교회 특전

- ✓ 15개교회 선정 후 \$3,000 지원
- ✓ 목회현장 소그룹 노하우 공유
- ✓ 소그룹 리더 훈련 지원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소그룹!**
- 침체된 교회를 다시 움직이게 한 실제 목회 현장의 **전략!**
- 지금,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십시오!



유경재 목사



이수호 목사

강사: 유경재 목사 (나성북부교회 담임)
소그룹 중심 목회사역의 실제

강사: 이수호 목사 (올림픽장로교회 담임)
말씀중심 소그룹 구조와 실제적용 사례

2026.3.23(월) 오전 10시~오후 2시

- 장 소: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 대 상: 담임목사, 목사, 소그룹 리더
- 등록비: 무료, 점심제공, QR 코드 스캔 후 등록
- 문 의: 전화번호 213-434-1170

무료공개세미나



지금 등록하세요!

공동주최: 기독교일보, 월드미션대학교 소그룹사역센터